

# 중소 건설업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2009. 2

이 의 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차 례>

요 약 .....	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의 구성 .....	5
제2장 중소 해외건설업 현황 .....	7
1. 중소 해외건설업체 현황 .....	7
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현황 .....	8
(1) 공종별 수주 현황 .....	8
(2) 지역별 수주 현황 .....	10
(3) 발주 형태별 수주 현황 .....	11
3. 소결론 .....	12
제3장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13
1. 해외건설 금융의 종류 .....	13
(1) 도급공사 관련 금융 .....	13
(2) 투자개발사업 관련 금융 .....	15
(3)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	16
2.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17
(1) 해외건설 보증 .....	17
(2) 시장 개척 지원 사업 .....	22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	25
(4) 공적개발원조 자금 .....	35
제4장 해외건설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	45
1.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	45
(1) 건설공제조합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	45

(2)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	47
2. 시장개척지원제도 개선 방안 .....	48
(1) 미국 USTDA 벤치마킹 .....	49
(2) 시장개척지원제도 합리화 방안 .....	55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	56
(1)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용자 지원 확대 방안 .....	56
(2) 수출보험 확대 방안 .....	57
4.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	58
(1) KOICA 개발조사 사업 및 EDCF 재원 확충 .....	59
(2) 공적자금 지원 절차 단순화 .....	60
(3) KOICA의 개발 조사사업과 EDCF의 연계 강화 .....	60
(4) EDCF 자금과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필요 .....	61
(5)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 유지 또는 점진적 비구속성화 .....	61
 제5장 요약 및 결론 .....	 63
 부록 .....	 65
 참고문헌 .....	 69
 Abstract .....	 70

## <표 차례>

<표 1-1> 지역별 세계 건설시장 규모 .....	1
<표 1-2> 개도국의 민간 참여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액 추이 .....	2
<표 1-3>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	3
<표 2-1> 중소 해외건설업체 신고 현황 .....	7
<표 2-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공종별) .....	9
<표 2-3>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지역별) .....	10
<표 2-4>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발주 형태별) .....	11
<표 3-1>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	15
<표 3-2>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제도 .....	17
<표 3-3> 해외건설 보증 수요 추정 .....	19
<표 3-4> 시공능력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 현황(2007년) .....	20
<표 3-5>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취급 실적 .....	21
<표 3-6> 타당성 조사사업 평가 기준 .....	23
<표 3-7> 기타 지원사업 평가 기준 .....	23
<표 3-8> 시장개척 자금 지원 실적 .....	24
<표 3-9> 시장개척 자금 지원 공사 수주 실적 .....	25
<표 3-10>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실적 .....	27
<표 3-1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업 용자 실적 .....	28
<표 3-1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부보 대상 .....	32
<표 3-13>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 인수 실적 .....	33
<표 3-14>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 실적 .....	34
<표 3-15>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 .....	34
<표 3-16>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 .....	35
<표 3-17> 우리나라의 ODA 체계 .....	37
<표 3-18> KOICA 협력 실적 총지원액 .....	39
<표 3-19> 표준 지원 조건(2008년 12월 15일 현재) .....	41
<표 3-20> EDCF 차관 종류별 승인 현황 .....	42
<표 3-21> EDCF 차관 종류별 집행 현황 .....	42
<표 4-1>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47

<표 4-2> USTDA 지원 현황 .....	53
<표 4-3> USTDA 분야별 지원액 .....	54
<표 4-4> USTDA의 회계연도별 성과 지표 .....	55
<표 4-5> USTDA 평균 지원액 .....	56
<표 4-6> KOICA 개발 조사사업과 EDCF 사업과의 연계 실적 .....	61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	6
<그림 3-1> 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	18
<그림 3-2>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	31
<그림 3-3> 해외사업 금융보험 구조 .....	33
<그림 4-1> UATDA의 신규시장 개척 타당성조사 지원 절차 .....	52

## 요 약

### 제1장 서론

-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의 가입 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공공사의 국제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Global Insight의 「World Construction Outlook」 조사에 따르면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2008년에 5조 23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국제 입찰로 진행되어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전체의 약 10%인 5,000억 달러로 추정됨.
- 한편, 해외 건설시장은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 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국가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시장은 1990년 117억 달러 규모에서 2000년 890억 달러, 2007년 1,57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음.
-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

한 금융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제2장 중소 해외건설업 현황

### 1. 중소 해외건설업체 현황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으로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2009년 1월 현재 2,842개사이며, 이 중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는 541개사임.
-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145개사, 전기업체가 120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2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02개사, 수주개발업체가 14개사, 전문건설업체가 148개사임.

### 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년 165억 달러, 2007년 398억 달러, 2008년 47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 중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5년에 전체 수주액의 8.4%인 9억 달러, 2006년 전체 수주액의 8.1%인 13억 달러,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인 67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14.9%인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제3장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1. 해외건설 금융의 종류

#### (1) 도급공사 관련 금융

- 첫째,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 단계별로 여러 가지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둘째,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는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해외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해외 발주자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회피(hedge)할 수 있는 각종 보험제도가 필요함.

## (2) 투자 개발사업 관련 금융

-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 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함.
- 첫째, 현지 조사 비용,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 및 본타당성 조사 비용 등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개척 자금이 필요함.
- 둘째,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 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해외에서 투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사업 위험 이외에도 투자 개발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 등이 필요함.

### (3)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 앞에서 설명한 해외 건설사업 관련 금융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사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수행함.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첫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시장개척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시장개척 비용은 초기에 투입해야 하고,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매몰 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토해양부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둘째,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대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함.
- 셋째, 원래 제도의 취지가 해외건설 사업과 관련한 금융제도는 아니지만 해외 건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임.
  - 공적개발 원조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해외건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

## 2.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1) 해외건설 보증

- 해외의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 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일부 발주자는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발주자는 현지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기관을 제한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 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하여 백업(back-up)하는 경우도 많음.
-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은행은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여 보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음.
-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것과
-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취급이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2) 시장 개척 지원 사업

- 해외건설 시장개척 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매물 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개척 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대상은 첫째, 해외건설 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사업, 둘째,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셋째,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 활동 지원, 넷째,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 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임.
- 2003년부터 시행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실적은 2003년 25건 3억 9,000만원에서 2007년 60건 21억 5,000만원을 기록하였음. 이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3년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30.6%인 1억 2,000만원이고, 2007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67.1%인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음.

###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 1)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상품은 직접 대출, 전대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 투자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해외건설 관련 금융 제도를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한 융자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임.
- 기업 규모별로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

적은 전무함.

## 2)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 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음.
- 첫째,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 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공사보험 실적은 2004년 3,150억원, 2005년 4,408억원, 2006년 2,373억원, 2007년 8,730억원 규모임.
- 둘째,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발주자로부터 보증 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 취급 실적은 2004년 1조 4,919억원, 2005년 9,998억원, 2006년 1조 3,247억원 및 2007년 1조 7,344억원임(선박 등에 대한 보험 포함).
-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취급 실적은 2004년 15.6%인 2,326억원, 2005년 36.8%인 3,682억원, 2006년 27.4%인 3,627억원, 2007년 35.5%인 6,153억원임.
- 셋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은 2004년 6조 9,773억원, 2005년 12조 3,606억원, 2006년 16조 2,709억원, 2007년 16조 9,793억원으로 2007년 인수 실적은 2004년 인수 실적에 비하여 2.4배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 시기에 해외건설 수주는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7년 389억 달러로 5.3배 증가하였음.

- 넷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의 실적은 2004년 2건 805억원, 2005년 5건 646억원, 2006년 2건 1,317억원, 2007년 9건 4,817억원이고, 2008년 11월까지 는 27건 9,887억원 규모임.
- 한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7년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2007년 인수 실적은 2,190억원임.

#### (4) 공적개발 원조 자금

-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서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자금이 있음.
- 이 자금은 공여국의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원조 자금임.
- 우리나라 ODA 체계는 양자간 협력 중 원조 수혜국에 변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 원조인 무상 자금 협력과 기술 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의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 자금 협력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이하 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개발 금융기관 등에 출자는 기획재정부가, UN 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 공적자금 지원(other official flow : OOF)에 해당하는 공적 수출 신용 등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1) KOICA 자금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전담 실시 기관으로 1991년 4월에 설립되었고, 개발 조사 사업,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 파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해외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개발 조사 사업임.
- 개발 조사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의 제공은 물론 수원국 정부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임.
- 도로·철도·공항·항만, 도시 개발, 자원·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농림·수산, 자원·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됨.
- KOICA 지원 실적은 2006년 기준 총 1,848억원(미화로 1억 9,349만 달러) 규모인데, 이 중 양자간 증여가 1,837억원이고, 다자간 증여가 11억원 규모임. 해외 건설과 관련이 깊은 개발 조사 사업비는 68억원(미화로 713만 달러) 규모임.

## 2) EDCF 자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 기금임.
-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로 구분됨.

-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의 종류는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기금전대 차관, 물자 차관, 사업준비 차관이 있음.
- EDCF 차관의 표준 지원 조건은 지원 대상 국가를 소득 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 조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기간도 장기임.
- EDCF 자금의 승인은 2003년 개발사업 차관 4건 1,002억원, 기자재 차관 4건 636억원 등 합계 8건 1,639억원에서 2007년에는 개발사업 차관 18건 4,850억원, 기자재 차관 3건 693억원 등 합계 21건 5,542억으로 3.4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집행 실적은 2003년 개발사업 차관 1,009억원, 기자재 차관 361억원 등 합계 1,370억원에서 2007년 개발사업 차관 1,363억원, 기자재 차관 190억원 등 합계 1,553억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지난 2003년부터 EDCF 승인 실적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비하여 집행 실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EDCF 승인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등의 기간 2~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임.

## 제4장 해외건설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 1.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 보증에서 중소기업 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공적인 수출 보증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할당하는 것임.

## 2. 시장개척지원제도 개선 방안

- 첫째,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미국 건설시장의 7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50억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함.

·시장개척 자금은 건당 지원 한도액이 2억원이고, 연간 20억원인데, 미국 USTDA는 연간 약 5,000만 달러(환율 1달러=1,000원 을 적용할 경우 500억원) 이고,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만도 약 3,000만 달러(환율 1달러=1,000원 을 적용할 경우 300억원)임.

- 둘째, 우리나라 시장개척 자금도 지원금을 받은 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미국의 USTDA는 타당성 조사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받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도 미국의 USTDA와 같이 지원 제도를 매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토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 (1)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용자 지원 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사업 관련 용자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이나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용자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실적은 전무함.
-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용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용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용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 (2) 수출보험 확대 방안

##### 1)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확대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4,817억원, 2008년 9,88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함.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이들 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함.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으로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 2) 환변동보험의 한도 확대 및 구조 변경

- 중소 건설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크게 확대하여야 함(2008년 환변동보험 인수 목표는 18조원).
- 또한, 현재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현재 환변동보험의 구조는 환율 하락시에는 보상 금액이 계약 금액의 25%로 정해져 있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무제한 환차손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환변동보험 구조를 환율 상승시에도 회수 금액을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조로 개선하여야 함.

## 4.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 (1) KOICA 개발 조사 사업 및 EDCF 재원 확충

- ODA 자금 중 해외건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자금임.
- 개발 조사 사업이란 개도국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 결정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현재 KOICA 개발 조사 사업의 규모는 68억원임(총 사업 지원액의 3.7%임).

-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이하 JICA)의 2006년도 개발 조사 사업은 총 사업 지원액 1,512억 엔 중 약 140억 엔(약 9.3%)으로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 EDCF 자금은 전체 지원 규모나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2007년 승인 실적 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임.
- 따라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OICA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기금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UN에서도 각국 정부에 대하여 GNI 대비 0.7% 이상을 원조에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OECD/DAC 회원 국가의 평균 비율도 2006년 기준 0.31%이고, 2006년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05%임.

## (2) 공적 자금 지원 절차 단순화

-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지원 요청, 승인 및 정부간 협정 체결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관 신청에서 구매 계약(공사 계약) 체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KOICA 개발 조사 사업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량 사업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 이를 다시 재외공관으로 통보하며 조사단을 파견하여 수원국과 사업 시행 조건에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부족시 추가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탄력

적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3)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의 연계 강화

-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자금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2003년도 기준 EDCF가 지원한 116개 사업 중 KOICA가 실시한 개발 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 사업은 5건, 958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부진한 실정임.

(4) EDCF 자금과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필요

- 일본의 경우 엔차관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의 해외투자 금융이 협조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가 많이 있음.
- 우리나라도 EDCF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금융이 협조하여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 유지 또는 점진적 비구속성화

- EDCF 자금이 비구속성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비구속성(untied) 조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예를 들어 IT 등)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시공업체 선정 조건에 단순 가격이 아닌 기술력 등 제반 평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최종 평가 및 승인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행사하여야 함.
-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의 엔차관의 경우도 외형상으로는 비구속성(untied) 원조이지만 실제로 자국 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어 발주하고 있음.
- 차관 공여국인 일본의 컨설턴트가 입찰 절차 및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거나, 자국 업체만이 PQ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수 공정에 대한 실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건설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공공사의 국제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sup>1)</sup> Global Insight의 「World Construction Outlook」 조사에 의한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2007년 4조 8,000억 달러, 2008년에는 5조 23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표 1-1> 참조). 이 중 국제입찰로 진행되어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 세계건설시장 규모의 약 10%인 5,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표 1-1〉 지역별 세계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규모	비중	규모	규모
전체	45,950	100.0	48,033	50,234
아시아	17,002	37.0	18,107	19,284
서유럽	12,866	28.0	13,303	13,756
동유럽	1,379	3.0	1,496	1,623
북미	10,569	23.0	10,706	10,845
중남미	2,298	5.0	2,458	2,630
중동	1,195	2.6	1,276	1,363
아프리카	643	1.4	687	733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Construction Outlook, 2007. 9.

한편, 해외건설시장은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

1) 세계건설시장은 세계에서 1년 동안 실제로 건설 분야에 지출된 건설투자액을 의미하며, 해외건설시장은 세계건설시장 중 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국가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시장은 1990년 117억 달러 규모에서 2000년 908억 달러, 2007년 1,57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표 1-2> 참조).

도급형 건설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2〉 개도국의 민간 참여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에너지	25.0	17.0	16.9	20.5	14.2	18.7	24.8	50.0
통신	48.7	45.2	32.6	28.1	44.3	58.9	64.6	75.0
교통	8.9	8.1	4.5	6.2	7.3	21.6	31.1	29.7
상하수	8.2	2.1	1.5	1.4	4.7	2.0	2.6	3.2
계	90.8	72.4	55.5	56.2	70.5	101.2	123.1	157.9
동아시아·태평양	18.0	12.5	11.4	17.4	13.5	18.1	18.7	21.5
유럽·중앙아시아	24.0	12.3	12.5	11.4	15.2	32.4	24.7	45.4
중남미	38.3	33.3	19.9	15.3	17.5	20.6	29.1	38.2
중동·북아프리카	4.1	4.3	1.5	1.8	7.9	7.0	11.6	12.8
남아시아	3.0	4.7	6.1	3.9	11.6	14.3	27.1	28.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4	5.2	4.1	6.3	4.7	8.7	11.8	10.9

주 : 1) 투자금액은 민간과 공공이 투자한 금액의 합계임.

2) 반올림 과정에서 가감이 있어 부문 및 지역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World Bank의 PPI Database(<http://ppi.worldbank.org>).

이와 같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해외건설협회와 연세대학교가 2006년 공동 수행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sup>2)</sup>에서 중소기업

2) 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2006. 1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연구 용역.



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공사 진출시 애로 사항으로 정부의 금융 및 세제 등 지원책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각종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다(<표 1-3> 참조).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도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 사항으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편, 공사 수행시 느끼는 애로 사항으로 이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들었고, 두 번째로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을 들었다.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 해외 경험 기술자 부족을 들었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었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한 금융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표 1-3〉 중소 규모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순위	기 진출업체		미 진출업체	
	진출시	공사 수행시	진출시	공사 수행시
1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프로젝트 자금조달	해외정보 수집	해외경험 기술자 부족
2	각종 보증발급	해외경험 기술자 부족	각종 보증발급	프로젝트 자금조달
3	해외정보 수집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입찰·계약 서류 작성	클레임 처리능력
4	해외 선진업체와의 연계 미흡	클레임 처리능력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기술력 부족
5	입찰·계약 서류 작성	기술력 부족	해외 선진업체와의 연계 미흡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 부족

자료 : 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06. 12, p. 155.

## 2. 선행 연구 검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로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 2006. 12), 「해외건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해외건설협회, 2005. 12) 및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 방안」(해외건설협회, 2003. 12) 등이 있다.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06)에서는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대기업이 수주한 해외공사에 하청으로 참여하여 해외공사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안을 들었다. 둘째,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무상원조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셋째, 시장개척 자금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해외건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2005)은 첫째, 최근 세계 투자개발사업의 동향과 전망, 둘째,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현황, 셋째, 선진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현황, 넷째, 국제금융 자금조달원별 제도를 분석하고, 다섯째,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건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설립 방안을 제시하였고, 펀드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의 부보 범위를 해외건설 투자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현재에는 해외건설 공사 및 장비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해서 계약 체결 이후의 신용위험과 비상위험만 부보 가능), 둘째, 해외건설 투자펀드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 자산운용에 대한 제약을 해소할 것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5장의 2 : 사모투자전문회사).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 방안」(2003)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공적원조자금의 실태, 둘째, 외국기관의 공적원조자금의 실태, 셋째, 우리 건설업체의 공적원조자금 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넷째, 공적원조자금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공적원조자금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KOICA와 EDCF 담당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일체 협력화, ODA와 관련된 전담 기술용역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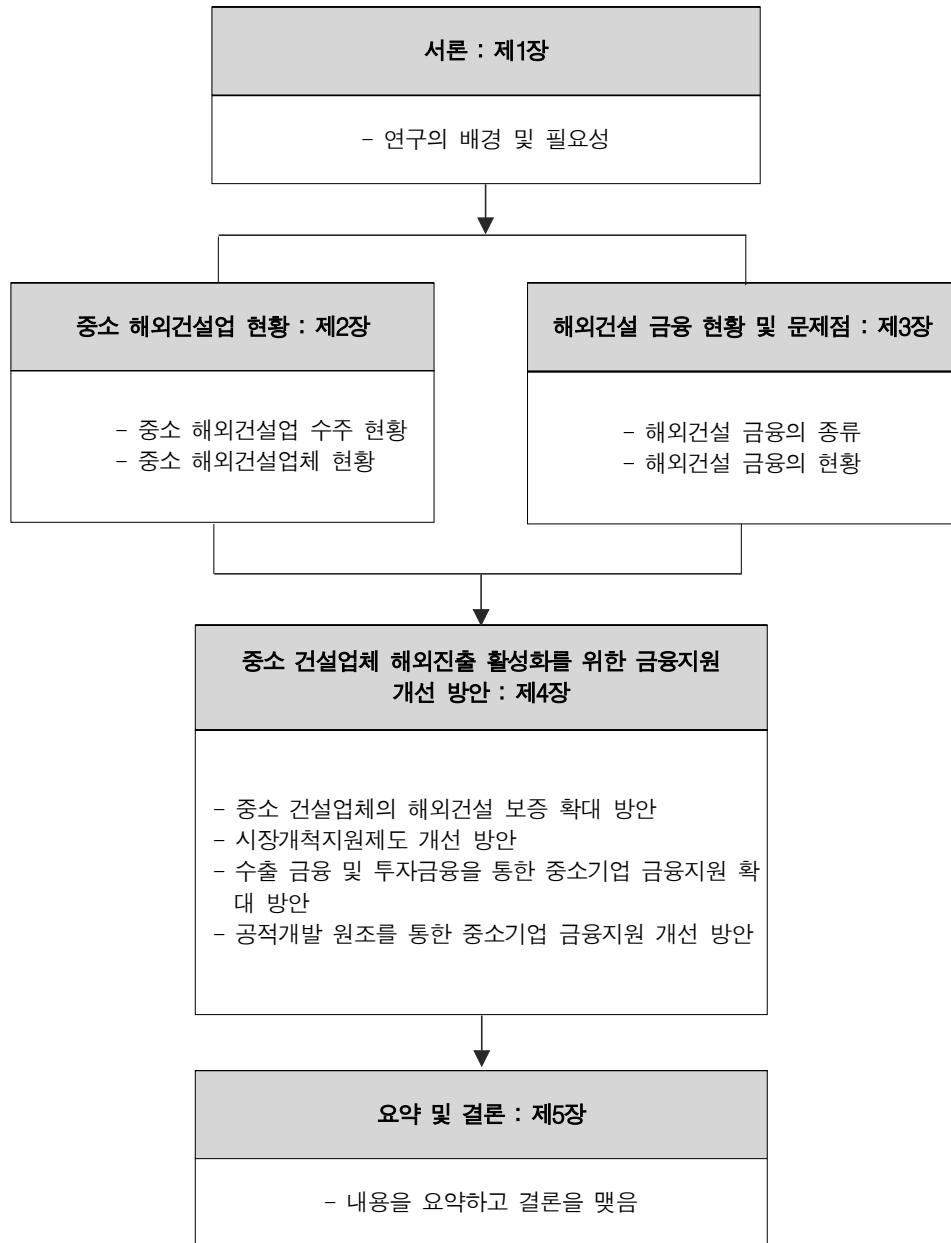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이다. 또한 해외건설사업 관련 금융지원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 제안이 제시되어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 건설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건설 관련 금융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이후에 제2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건설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은 첫째,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방안, 둘째, 시장개척지원제도 개선 방안, 셋째,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넷째,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을 플로우 차트(flow chart)로 표시하면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 제 2 장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현황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현황은 첫째,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고 신고한 중소기업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최근의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수주 규모를 공종별, 지역별 및 발주형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소기업 해외건설업체 현황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으로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2009년 1월 현재 2,842개사이며, 이 중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는 541개사이다(<표 2-1> 참조).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1,038개사, 전기업체가 490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05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264개사, 수주개발업체가 142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95개사, 환경오염업체가 8개사이다.

이 중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145개사, 전기업체가 120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2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02개사, 수주개발업체가 14개사, 전문건설업체가 148개사이다.

〈표 2-1〉 중소기업 해외건설업체 신고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종합 건설	일반 건설	전기	정보 통신	건설 ENG	수주 개발	전문 건설	환경 오염
업종신고 (수리건수)	4,514	1	1,252	658	252	296	161	1,848	46
신고업체	2,842	1	1,037	490	105	264	142	795	8
진출업체	541	1	144	120	12	102	14	148	0

주 : 1) 신고업체는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고 업종을 반납한 업체는 제외하였음.

2) 업종은 「해외건설촉진법」 [별표 1]에 의한 구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구분과 상이함.

3) 2009년 1월 30일 현재 자료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http://smc.icak.or.kr/>).

## 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현황

### (1) 공종별 수주 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년 165억 달러, 2007년에 398억 달러, 2008년에 4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5년에 전체 수주액의 8.4%인 9억 달러, 2006년 전체 수주액의 8.1%인 13억 달러,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인 67억 달러, 2008년 14.9%인 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2-2>참조).<sup>3)</sup>

공종별로 전체 수주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플랜트와 토목공정을 제외한 전 공종이 2008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플랜트는 중소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2.7%를 수주하였고, 토목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21.3%, 건축은 35.3%, 전기는 43.1%, 통신은 100%, 용역은 35.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기업 수주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 44.8%, 2006년 51.7%, 2007년 141.6%, 2008년 19.7%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건설이 2005년 3.7%, 2006년 83.3%, 2007년 241.5%, 2008년 79.0% 증가하였다. 건축분야는 2005년 40.3%, 2006년 180.0%, 2007년 138.9%, 2008년 12.2% 증가하여 2006년과 2007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산업설비는 2005년에는 59.5% 증가하였고, 2006년 32.2%, 2007년 131.2%, 2008년 6.1%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수주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 114.9%, 2006년 46.0%, 2007년 401.9%, 2008년 6.2% 증가하여 2005년과 2007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건설이 2005년 266.2%, 2006년 54.7%, 2007년 507.6%, 2008년 12.6% 증가하여 2005년과 2007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건축분야는 2005년 252.2%, 2006년 43.7%, 2007년 541.4%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13.3% 감소하였다. 산업설비는 2005년에는 0.2% 감소하였고, 2006년 186.4%, 2007년 128.2%, 2008년 34.3% 증가하였다.

3) 해외건설 수주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청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이 하청을 받는 경우 전체 기업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하청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원청금액만을 합산하지만, 중소기업 통계에서는 원청금액과 하청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전체 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금액의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예를 들어, 2008년도 통신의 경우 138.9%).

전체기업의 수주액은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8년 476억 달러로 6.4배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수주액은 2004년 4억 3천만 달러에서 2008년 71억 달러로 16.7배 증가하였다.

〈표 2-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공종별)

(단위 : 천 달러)

공종 구분	기업구분	2004년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2008년	증감률%
총 계	중소기업	425,703	914,642	114.9	1,334,961	46.0	6,700,192	401.9	7,117,725	6.2
	전체기업	7,498,313	10,859,276	44.8	16,468,164	51.7	39,788,324	141.6	47,639,720	19.7
	비율	5.7%	8.4%	48.4	8.1%	-3.8	16.8%	107.7	14.9%	-11.3
토 목	중소기업	51,523	188,681	266.2	291,802	54.7	1,773,017	507.6	1,996,334	12.6
	전체기업	806,126	835,613	3.7	1,532,088	83.3	5,231,641	241.5	9,365,769	79.0
	비율	6.4%	22.6%	253.3	19.0%	-15.7	33.9%	77.9	21.3%	-37.1
건 축	중소기업	115,551	406,902	252.1	584,722	43.7	3,750,463	541.4	3,251,604	-13.3
	전체기업	873,619	1,226,058	40.3	3,432,766	180.0	8,201,351	138.9	9,199,086	12.2
	비율	13.2%	33.2%	150.9	17.0%	-48.7	45.7%	168.5	35.3%	-22.7
산업 설비	중소기업	106,436	106,196	-0.2	304,103	186.4	694,027	128.2	931,835	34.3
	전체기업	5,181,918	8,262,875	59.5	10,920,242	32.2	25,243,972	131.2	26,782,736	6.1
	비율	2.1%	1.3%	-37.4	2.8%	116.7	2.7%	-1.3	3.5%	26.6
전 기	중소기업	98,482	119,101	20.9	73,524	-38.3	275,080	274.1	575,133	109.1
	전체기업	544,705	374,133	-31.3	474,308	26.8	689,732	45.4	1,335,838	93.7
	비율	18.1%	31.8%	76.1	15.5%	-51.3	39.9%	157.3	43.1%	8.0
통신	중소기업	2,613	13,296	408.8	2,923	-78.0	44,296	1,415.4	25,965	-41.4
	전체기업	2,613	13,296	408.8	2,725	-79.5	41,085	1,407.7	18,692	-54.5
	비율	100.0%	100.0%	0.0	107.3%	7.3	107.8%	0.5	138.9%	28.8
용역	중소기업	51,098	80,466	57.5	77,887	-3.2	163,309	109.7	336,854	106.3
	전체기업	89,332	147,301	64.9	106,035	-28.0	380,543	258.9	937,599	146.4
	비율	57.2%	54.6%	-4.5	73.5%	34.5	42.9%	-41.6	35.9%	-16.3

주 : p. 8의 주 3 참조.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2) 지역별 수주 현황

중소 건설업체의 지역별 해외수주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중동 지역이 전체기업 수주액 272억 달러의 11.2%인 31억 달러, 아시아 지역이 전체기업 147억 달러의 24.7%인 36억달러, 태평양북미 지역이 전체기업 수주액 6억 달러의 2.7%인 1,600만 달러, 유럽이 전체기업 수주액 12억 달러의 3.8%인 4,400만 달러,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기업 수주액 15억 달러의 19.8%인 3억 달러, 중남미 지역이 전체기업 수주액 24억 달러의 3.1%인 7,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2-3> 참조).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67억 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전체 수주액의 93.9%를 차지하였다.

〈표 2-3〉 중소기업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지역별)

(단위 : 천 달러)

지역구분	기업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중소기업	425,703	914,642	1,334,961	6,699,867	7,117,725
	전체기업	7,498,313	10,859,276	16,468,164	39,788,146	47,639,720
	비율	5.7%	8.4%	8.1%	16.8%	14.9%
중동	중소기업	143,604	251,115	416,645	4,977,973	3,052,538
	전체기업	3,570,999	6,445,092	9,530,137	22,800,982	27,204,036
	비율	4.0%	3.9%	4.4%	21.8%	11.2%
아시아	중소기업	268,990	592,665	787,901	1,304,295	3,631,488
	전체기업	2,275,179	2,611,327	4,046,163	12,854,654	14,689,285
	비율	11.8%	22.7%	19.5%	10.1%	24.7%
태평양북미	중소기업	1,108	22,018	6,775	72,028	16,162
	전체기업	96,021	155,681	379,010	675,138	609,044
	비율	1.2%	14.1%	1.8%	10.7%	2.7%
유럽	중소기업	6,069	6,528	34,270	58,419	44,473
	전체기업	804,839	174,847	512,647	1,436,968	1,159,519
	비율	0.8%	3.7%	6.7%	4.1%	3.8%
아프리카	중소기업	5,898	24,758	82,928	180,471	296,667
	전체기업	711,930	1,274,747	1,557,326	1,687,372	1,501,213
	비율	0.8%	1.9%	5.3%	10.7%	19.8%
중남미	중소기업	34	17,558	6,442	106,681	76,397
	전체기업	39,345	197,582	442,881	333,032	2,476,623
	비율	0.1%	8.9%	1.5%	32.0%	3.1%

주 : p. 7의 주 3 참조.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3) 발주 형태별 수주 현황

중소 건설업체의 발주형태별 해외수주 현황을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개경쟁으로 수주한 금액은 전체기업 수주액 168억 달러의 6.8%인 11억 달러, 지명경쟁으로 수주한 금액은 전체기업 수주액 173억 달러의 5.3%인 9억 달러,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금액은 전체기업 수주액 100억 달러의 27.8%인 28억 달러, 투자개발형 수주액은 전체기업 수주액 36억 달러의 64.0%인 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64.0%인 23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중소기업 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발주형태별)

(단위 : 천 달러)

구 분	기업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중소기업	425,703	914,642	1,334,961	6,699,867	7,117,725
	전체기업	7,498,313	10,859,276	16,468,164	39,788,146	47,639,720
	비율	5.7%	8.4%	8.1%	16.8%	14.9%
공개경쟁	중소기업	95,962	63,203	147,391	303,310	1,138,986
	전체기업	2,131,322	2,184,388	4,596,505	11,443,911	16,817,144
	비율	4.5%	2.9%	3.2%	2.7%	6.8%
지명경쟁	중소기업	114,513	137,350	178,694	508,131	913,820
	전체기업	3,445,607	6,149,743	6,845,753	10,892,351	17,254,551
	비율	3.3%	2.2%	2.6%	4.7%	5.3%
수의시달	중소기업	130,627	353,634	438,768	5,034,299	2,781,268
	전체기업	1,836,783	2,076,020	3,553,714	14,644,227	10,001,823
	비율	7.1%	17.0%	12.3%	34.4%	27.8%
개발형	중소기업	84,601	360,455	570,108	854,127	2,283,651
	전체기업	84,601	449,125	1,472,192	2,807,657	3,566,202
	비율	100.0%	80.3%	38.7%	30.4%	64.0%

주 : p. 3의 주 3 참조.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3. 소결론

최근에 해외건설 수주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4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율은 대기업의 증가율보다 높아 2004년 중소기업 수주액이 전체 수주액의 5.7%를 차지하던 것이 2008년에는 14.9%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 전체 수주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설비와 토목 공정을 제외한 전 공정이 2008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발주형태별로 구분하는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은 2005년과 2008년에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해외건설 수주 금액에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중소기업을 위하여 더욱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제3장에서는 해외건설 금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 관련된 금융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시에 필요한 금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책 금융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해외건설 금융의 종류

본 절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 필요한 금융에 대해서 도급공사와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도급공사 관련 금융

해외 도급공사 관련 금융으로는 첫째, 해외공사 보증을 들 수 있다.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 단계별로 여러 가지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가 해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는 데 필요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는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발주자가 해외 국적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회피(hedge)할 수 있는 각종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상 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제도 등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의 종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찰 단계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입찰보증, 계약 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이행보

증,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에 대한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하자보수보증 등이 있다. 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찰보증(tender security : bid bond)

입찰자에게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마감일 이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증이다.

2)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 performance bond)

계약이 성립된 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증이다. 보증금액은 공사의 규모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나 계약금액의 5~15% 정도가 일반적이다.

3) 선급금보증(advanced payment guarantee : advanced payment bond)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반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

4) 유보금보증(guarantee for retention money : retention bond)

대부분의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사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 기성 지급 시 일정 비율(대개의 경우 10%)은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보증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5) 하자보수보증(guarantee for defects : maintenance bond)

시공자가 공사를 완공한 이후 하자담보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

무를 보장받기 위한 보증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보증 종류	보증 비율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주요 내용 및 특기 사항
입찰보증	5% 이하	- 보증기간이 2개월 내외로 단기간임.
계약이행보증	5~15% 정도(통상 10%)	- 계약의 이행 등을 보장 - 보증기간이 공사 전기간으로 장기간임.
선금금보증	10% 내외	- 선금금 수령후 계약 불이행시 선금금 대지급
유보금보증	통상 10%	- 기성금 지급시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보증 으로 대신하는 것
하자보증	10% 내외	-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 보수 의무 보증 - 보증기간이 통상 1년 정도임.

## (2) 투자개발사업 관련 금융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에서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개척 자금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자금의 예로는 현지 조사비용,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및 본타당성 조사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해외시장개척 비용은 사업화 단계 이전에 투입해야 하고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매몰비용(sunk cost)이 된다.

둘째,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금은 대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형식으로 제공된다.

셋째, 해외에서 투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사업위험 이외에도 투자개발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험으로는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 등이 있다.

### (3)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위에서 설명한 해외건설사업 관련 금융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사적인 민간금융기관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해외건설 보증과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적인 정책 금융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외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책 금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단계 이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시장개척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시장개척비용은 초기에 투입해야 하고,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매몰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신규 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 다변화 및 수주 확대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원래 제도의 취지가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금융제도는 아니지만 해외건설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하 ODA)이다. 공적개발원조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도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해외건설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외건설과 관련된 공적인 금융제도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이하에서는 해외건설 보증 현황과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적인 정책 금융의 현황

을 시장개척 자금,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 공적개발원조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제도

구 분	시장개척지원제도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	공적개발원조
실시 기관 또는 기금	- 국토해양부(해외건설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도의 내용 또는 금융 상품	- 해외건설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한국수출입은행 ① 직접대출 ② 프로젝트 파이낸스 ③ 이행성보증 ④ 해외투자자금대출 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  - 한국수출보험공사 ① 중장기수출보험 ② 이자율변동보험 ③ 해외공사보험 ④ 수출보증보험 ⑤ 환변동보험 ⑥ 해외투자보험 ⑦ 해외사업금융보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개발조사사업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①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유상 차관 · 개발사업차관 · 기자재차관 · 기금전대차관 · 물자차관 · 사업준비차관

## 2.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하여 앞에서 살펴본 해외건설과 관련된 정책 금융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해외건설 보증

#### 1) 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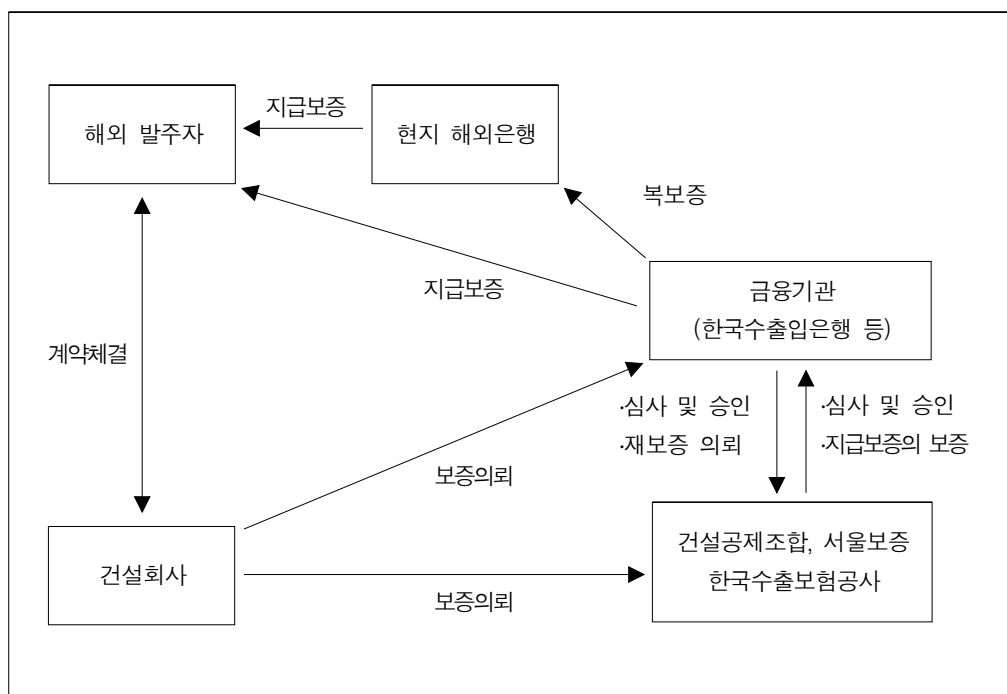
해외의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일부 발주자는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발주자는 현지 은행으로 보

증서 발급기관을 제한한다.<sup>4)</sup>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는 법률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보증은 현지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 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하여 백업(back-up)하는 경우도 많다.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은행은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여 보증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다(해외건설 보증의 형태는 <그림 3-1> 참조).

복보증이란 원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림 3-1〉 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4) 이후에 기술하는 해외건설 보증 현황 참조.



## 2) 해외건설 보증 수요 추정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이용하여 해외건설 보증 수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2003년 36억 7,000만 달러에서 2005년 108억 6,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164억 7,000만 달러, 2007년 39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003년 4조 3,959억원, 2004년 7조 8,285억원, 2005년 11조 12억원, 2006년 15조 3,105억원 및 2007년 37조 3,747억원 규모이다.<sup>5)</sup>

이 중 보증수요 금액은 입찰보증은 계약금액의 5%,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 선급금보증은 계약금액의 1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금액(수주금액)의 25%를 보증수요금액으로 추정하였다.<sup>6)</sup>

이렇게 추정한 해외 건설공사 보증수요 금액은 2003년에 1조 990억원, 2004년에 1조 9,571억원, 2005년에 2조 7,503억원, 2006년에 3조 8,276억원, 2007년에 9조 3,436억원 규모이다(<표 3-3> 참조).

〈표 3-3〉 해외건설 보증 수요 추정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주실적(억 달러)	36.7	75.0	108.6	164.7	397.9
수주실적 원화 환산액(억원)	43,959	78,285	110,012	153,105	373,747
해외건설보증 수요(억원) (계약금액의 25% 가정)	10,990	19,571	27,503	38,276	93,436

주 : 환율은 월별 수주액에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음.

## 3) 해외건설 보증 현황

한편, 2007년 한 해 동안 시공능력 순위 30위 이내의 기업이 수주한 52건 공사 256억 달러의 보증 취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52건 중 직접보증 형태로 보증을 받은 것이 34건

5) 해외건설 수주액 원화 환산은 월별 수주액 규모를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다.

6)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수요 추정시 입찰보증수요를 계약금액의 5%로 추정하는 것은 입찰보증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보증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고 수주액으로는 181억 달러이고, 복보증 형태로 보증을 받은 것이 18건이고 수주액으로는 75억 달러이다.

직접보증 형태로 보증을 한 34건, 181억 달러 중 8건 51억 달러는 한국수출입은행<sup>7)</sup>에서 보증을 했고, 4건 24억 달러는 국내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 2건 23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취급했고, 현지 은행이 20건 83억 달러의 보증을 취급했다.

복보증 형태로 보증을 한 18건 75억 달러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현지 은행이 보증을 취급한 것은 9건 33억 달러 규모이고, 국내은행과 현지 지점이 복보증 형태로 보증을 취급한 것은 6건 32억 달러 규모이며, 외국계 국내은행과 현지 지점이 복보증 형태로 보증을 취급한 것이 3건 10억 달러 규모이다.

〈표 3-4〉 시공능력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 현황(2007년)

보증방식		건수	수주금액(억 달러, %)	
직 접 보 증	한국수출입은행	8	51	(19.9)
	국내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	24	(9.4)
	외국계 국내은행(BNPP, HSBC)	2	23	(9.0)
	현지은행(Arab Bank, NBK 등)	20	83	(32.4)
	소 계	34	181	(70.7)
복 보 증	한국수출입은행+현지은행	9	33	(12.9)
	국내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 현지지점 등	6	32	(12.5)
	외국계 국내은행(BNPP, HSBC) +현지지점 등	3	10	(3.9)
	소 계	18	75	(29.3)
합 계		52	256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참고자료.

7) 한국수출입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수출신용기관이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보증서를 받지 않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 4)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실적

한국수출입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수출신용기관이나,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자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4년 8,991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4년 17억원이고(전체 보증의 0.2%차지), 2007년에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차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표 3-5> 참조).

#### 5)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

중소건설업 지원 관점에서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건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취급이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5〉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취급 실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 보증실적(억원)(A)	8,991	8,844	7,001	10,070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실적(억원)(B)	17	39	12	476
중소기업 비중(C=B/A)	0.2%	0.4%	0.2%	4.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2)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시장 다변화 및 수주 확대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매몰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개척 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1) 시장개척사업 범위

시장개척사업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범위는 첫째,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둘째,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셋째, 미개척 다국적기업·개발업자·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넷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이다(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

### 2) 사업 대상

시장개척지원사업의 대상은 첫째, 해외건설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사업, 둘째,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셋째,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 활동 지원, 넷째,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이다(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

### 3) 지원금액의 한도 및 비율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의 건당 지원 한도액은 2억원이고, 총 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대기업 단독인 경우 50% 이내이고, 중소기업과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70% 이내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동인 경우는 대기업은 60%, 중소기업은 80% 이내이다(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 4) 평가기준

시장개척 지원자금의 평가기준은 타당성조사 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 1 및 2). 여기서 기타 지원사업이란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지원,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 활동 지원,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 개척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한다.

〈표 3-6〉 타당성조사 사업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1. 프로젝트 실현 여건(55%)	- 재원조달 가능성(20%)
	- 발주국 신용도(5%)
	-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20%)
	-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10%)
2. 해외건설 기여도(35%)	-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0%)
	- 신청사업의 시장개척 효과(10%)
	- 공사내용의 발전성(10%)
	- 외화가득 효과(5%)
3. 사업내역(10%)	- 사업내역의 합리성(5%)
	- 예산의 적정성(5%)

〈표 3-7〉 기타 지원 사업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1. 프로젝트의 평가(25%)	- 발주자 및 재원의 신뢰도(10%)
	- 공사내용의 발전성(10%)
	- 발주국 신용도(5%)
2. 수주 가능성(40%)	- 수주활동 진행내용(10%)
	- 발주처 및 협력업체 관계(10%)
	- 예상 경쟁관계(10%)
	- 후속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10%)
3. 해외건설 기여도(25%)	- 신청 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5%)
	- 신청 사업의 시장개척 효과(10%)
4. 사업내역(10%)	- 사업내역의 합리성(5%)
	- 예산의 적정성(5%)

## 5) 지원 실적

2003년부터 시행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실적은 2003년 25건 3억 9,000만원에서 2007년 60건 21억 5,000만원을 기록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03년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30.6%인 1억 2,000만원이고, 2007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67.1%인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즉, 2003년에 중소기업이 30.7%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매년 전체 지원금액의 60~70%를 지원받았다(<표 3-8> 참조).

〈표 3-8〉 시장개척 자금 지원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금액 (천원)	중소기업	118,440 (30.6)	347,000 (59.4)	368,000 (64.2)	606,000 (68.5)	1,441,770 (67.1)
	대기업	268,580 (69.4)	584,000 (40.6)	573,000 (35.8)	279,000 (31.5)	708,230 (32.9)
	합계	387,020 (100)	931,000 (100)	941,000 (100)	885,000 (100)	2,150,000 (100)
업체 수	중소기업	10 (41.7)	15 (46.9)	15 (45.5)	24 (57.1)	40 (63.5)
	대기업	14 (58.3)	17 (53.1)	18 (54.5)	18 (42.9)	23 (36.5)
	합계	24 (100)	32 (100)	33 (100)	42 (100)	63 (100)
지원 건수	대기업	11 (44.0)	16 (45.7)	15 (44.1)	25 (62.5)	40 (66.7)
	중소기업	14 (56.0)	19 (54.3)	19 (55.9)	15 (37.5)	20 (33.3)
	합계	25 (100)	35 (100)	34 (100)	40 (100)	60 (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해당 기업군의 비율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 자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6년 12월 기준 14건 1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표 3-9> 참조). 2006년까지 시장개척지원자금은 119건의 프로젝트에 3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말 기준 14건 19억 5,0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하였다. 이는 지원 건수 대비 11.7%의 수주 성공률로서 시장개척 지원자금이 우리 건설업체의 신시장 진출 지원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시장개척 자금 지원 공사 수주 실적

구분	국가	프로젝트 종류	금액(천 달러)	비고
2003년	캄보디아	전기공사	10,110	2개사 컨소시엄
	중국	철도공사 감리	450	
	베트남	신도시 개발	901,790	5개사 컨소시엄
2004년	러시아	정유공장	448,000	
	이라크	발전소 개보수	1,993	
	이라크	발전소 개보수 용역	38	
	아프칸	도로공사 2공구	28, 178	
	아프칸	도로공사 3공구	26,573	
	인도네시아	빌딩 건설	127,000	
	앙골라	르완다 호텔 건축	185,850	
2005년	이집트	석유화학공장	222,109	
	라오스	도로 타당성 조사	119	
2006년	알제리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A)	220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B)	94	
합계(14건)			1,952,524	

자료 : 해외건설협회(2005. 12), 해외건설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 조달 방안, p. 220.

#### 6) 시장개척지원제도의 문제점

시장개척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지원자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2007년 전체 지원액은 21억원 규모이고, 이 중 67.1%인 7억원 정도가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었다. 또한, 시장개척지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WTO는 각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수출 지원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OECD의 「수출신용협약(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up>8)</sup>에 따른 수출신용은 수출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

8) OECD 「수출신용협약(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의 내용은 부록 참조.

국의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용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정부의 수출 금융 이외의 해외투자금융도 담당하고 있다. 해외투자금융은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 금융 등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한국수출입은행

### 가. 해외건설 관련 금융상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 등 정부의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직접 대출

외국의 구매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연불기간 2년 이상의 결제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수출계약금액에서 기준선수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에 대외 신용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되고, 대출기간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통상 5~15년이다. CIRR은 3, 5, 7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한 기준금리에 1퍼센트를 가산한다.



## ② 전대자금 대출

전대자금대출(relending)이란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외국정부 포함)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주고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이를 수입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 지원제도이다. 수출자는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내기업이 해외 플랜트, 발전소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과 프로젝트 완공 후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 대출하는 제도이다. 다만, 상환기간은 「OECD 프로젝트 파이낸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하고 있고, 1999년 멕시코 마데로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2억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17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해 왔으며, 2003년에 3건, 14억 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표 3-10> 참조).

〈표 3-10〉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프로젝트명	수출자	승인액
1999	멕시코, Madero Refinery Project	SK건설	200
2000	멕시코, Salamanca Refinery 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30
	멕시코, Tula Refinery Project	삼성엔지니어링	24
	필리핀, Ilijan Power Project	대림산업	70
2002	폴란드, PET Project	SK케미칼	20
2003	이란, South Pars(9-10) Project	LG건설	878
	이란, 석유화학사업(EB)	대림산업	60
	멕시코, Catereyta Refinery Project	SK건설	492
계	8건		1,774

## ④ 해외투자자금 대출

국내 기업에게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설비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장기자금

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 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 법인에게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상품이다.

#### 나. 해외건설 관련 융자 실적

위에서 설명한 해외건설 관련 금융 제도를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한 융자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및 2007년에 1조 97억원이다(<표 3-11>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아닌 도급공사와 관련한 융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는 현재까지 융자 실적이 없다.

**<표 3-1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업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2)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이라는 정책 금융을 취급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수출보험이란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 금융을 제공한 이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등 13개의 수출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공사와 관련된 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이 있다. 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해외건설 관련 정책 보험의 종류

##### ① 중장기수출보험

플랜트, 선박 등 자본재 수출에 대하여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연불 수출 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제도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 있다. 비상위험은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국가 신용 위험(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 조치 등) 및 기타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파산, 수입국 법원의 채무 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 불능 또는 결제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 지체인 경우를 말한다.

손실액 산정은 수출 목적물 제작을 위해 손실의 확정 일까지 지출된 비용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선수금 포함),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 불능이 된 수출 목적물 또는 원자재 등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및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획득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의 손실액 최대 금액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금액이 된다.

##### ② 이자율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자율변동보험은 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된 거래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이자율변동보험에 따라 수입자는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

### ③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계약을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거래는 해외공사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해외공사와 관련하여 장비 또는 이에 관한 권리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건설,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및 장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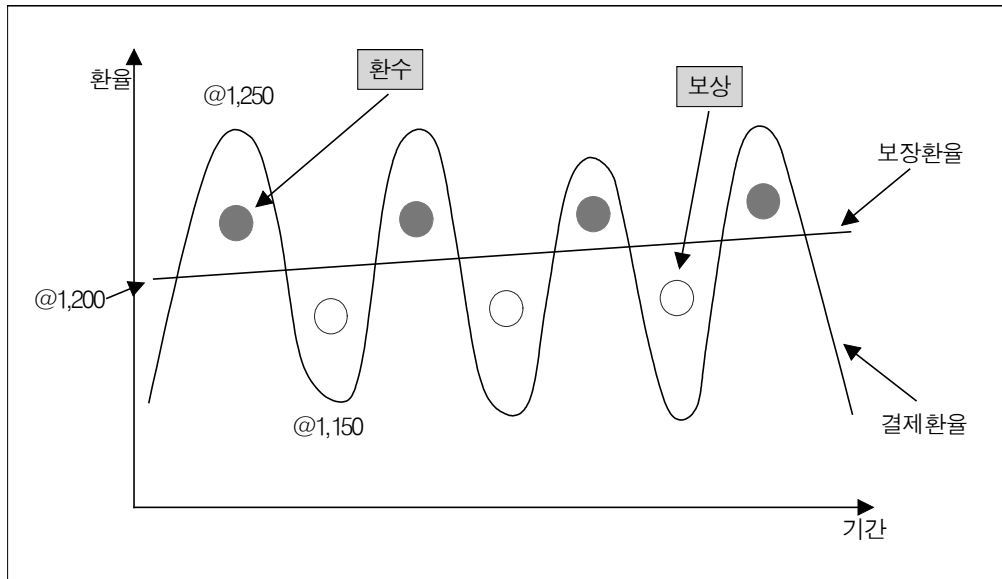
### ④ 수출보증보험

플랜트 수출 또는 해외공사 계약과 관련한 보증서(bid bond, advance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retention bond, warranty bond 등)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수입자 또는 발주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당하여 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출보증보험이다.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은 해외건설 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복보증으로 이용되고 있다(해외건설 보증의 형태 참조).

### ⑤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이다. 위험 관리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기본계약 내용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그림 3-2> 참조). 즉, 보장환율을 설정하고 보장환율이 결제환율(실제환율)보다 높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보전해주고, 보장환율이 결제환율(실제환율)보다 낮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그림 3-2〉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 ⑥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 투자상대국의 수용, 전쟁, 송금 위험, 약정불이행 위험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 및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의 부보대상 거래에 5종류의 세부종목이 있다.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해외투자,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에 의한 투자, 장기 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 해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광업권·광업소유권 등과 유사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내 개발사업자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투자금융에 대한 보험 등이 있다(<표 3-12> 참조). 이 중 해외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은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내개발사업자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투자금융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표 3-1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부보 대상

세부종목	부보대상 해외투자
주식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현지법인의 설립, 기설립 법인의 인수, 증자(일부 지분참여 포함)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대출금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이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인수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정부를 포함)에 대한 채권(이하 '대출금'이라 함)을 취득하는 것
보증채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정부를 포함)의 2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부동산에 대한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광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
투자금융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내 개발사업자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⑦ 해외사업금융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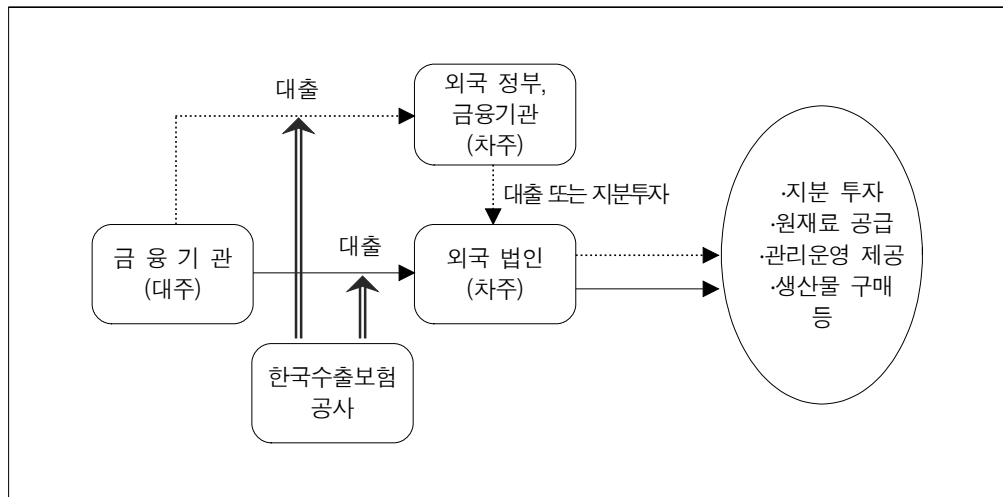
해외사업금융보험이란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관련 금융기관)에게 수출 증진이나 외화가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로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이다(해외사업금융보험의 기본 구조는 <그림 3-3> 참조).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에 대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에 의해서 2007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사업의 형태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지분 참여, 해외사업 관련 운영 및 관리 계약(Operation & Management),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 계약,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 계약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으로는 ①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 ② 해외사업 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③ 해외사업 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④ 해외사업 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⑤ 상기 이외에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으로 정하였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국가의 비상위험과 차주의 신용위험이다. 국가의 비상위험과 차주의 신용위험은 OECD 가이드라인상의 ① 모라토리움 선언, ② 송금

지연 조치, ③ 현지화 예치시 상환 의무 면제, ④ 여타 상환 제한 조치, ⑤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 등의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s)과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이다. 차주의 신용위험은 차주의 파산, 차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협약으로 인한 차주의 지급 불능, 차주의 결제 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지체이다.

〈그림 3-3〉 해외사업금융보험 구조



#### 나. 해외건설 관련 수출보험 실적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 관련 수출보험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첫째,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공사보험 실적은 2004년 3,150억원, 2005년 4,408억원, 2006년 2,373억원, 2007년 8,730억원 규모이다(<표 3-13> 참조).

〈표 3-13〉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공사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2007
3,150	4,408	2,373	8,730

둘째, 해외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 취급 실적은 2004년 1조 4,919억원, 2005년 9,998억원, 2006년 1조 3,247억원 및 2007년 1조 7,344억원이다. 이는 건설공사 이외에 선박 등을 포함한 실적이다(<표 3-14> 참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취급 실적은 2004년 15.6%인 2,326억원, 2005년 36.8%인 3,682억원, 2006년 27.4%인 3,627억원, 2007년 35.5%인 6,153억원이다.

〈표 3-14〉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172	1,259,392	92	631,643	57	961,935	72	1,119,034
중소기업	145	232,551	241	368,168	212	362,735	312	615,324
중소기업 비중	45.7%	15.6%	72.4%	36.8%	78.8%	27.4%	81.3%	35.5%
합계	317	1,491,943	333	999,811	269	1,324,670	384	1,734,358

주 : 건설공사 이외의 선박 등에 관한 실적을 포함한 자료임.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셋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은 2004년 6조 9,773억원, 2005년 12조 3,606억원, 2006년 16조 2,709억원, 2007년 16조 9,793억원으로, 2007년 인수 실적은 2004년 인수 실적에 비하여 2.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표 3-15> 참조). 이 시기에 건설수주는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7년 389억 달러로 5.3배 증가하였다.

〈표 3-15〉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입찰방식	39,263	49,371	82,034	75,777
선물환 방식	30,510	74,235	80,675	94,016
합계	69,773	123,606	162,709	169,793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넷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의 실적은 2004년 2건 805억원, 2005년 5건 646억원, 2006년 2건 1,317억원, 2007년 9건 4,817억원이고, 2008년 11월까지 27건 9,887억원 규모이다(<표 3-16> 참조). 한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7년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2007년 인수 실적은 2,190억원이다.

〈표 3-16〉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2	5	2	9	27
합계	805	646	1,327	4,817	9,887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의 문제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과 관련된 정책 금융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치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업에 대한 용자는 1조 67억원 규모인데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에 대한 용자 실적은 전무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의 인수 실적은 1조 1,190억원 규모이고, 이 중 35.5%인 6,153억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 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투자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실적은 미미하다. 2008년 현재 해외투자보험의 인수 실적은 9,887억원 규모이고, 2007년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 실적은 2,190억원 규모이다.

### (4) 공적개발원조 자금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있다. 이 자금은 공여국의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도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원조자금이다.

ODA(공적개발원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sup>9)</sup>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그 시행기관에 의하여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공여될 것, 둘째,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원조의 주요 목적으로 할 것, 셋째, 양허적인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으로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증여율(Grant Element)<sup>10)</sup>이 25% 이상일 것, 넷째, OECD/DAC 수혜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등이다.<sup>11)</sup>

우리나라 ODA 체계는 양자간 협력 중 원조 수혜국에 변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원조인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의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이하 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과 관련하여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기획재정부가, UN 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 공적자금 지원(OOF)에 해당하는 공적수출신용 등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표 3-17> 참조).

---

9)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24개 전문위원회 중의 하나로 개도국 원조 및 개발을 위한 각종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원조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비회원국으로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10) 차관 금액에서 미래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할인율(10%)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다.

11)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도국 경제협력자금의 흐름을 공적개발원조(ODA),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 : OOF) 및 민간자금으로 대별하고, ODA는 다자간 원조와 이국간 원조로 구분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과 IMF, World Bank, ADB 등에 대한 출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구성되며,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는 개도국 정부에 대한 직접 차관 형태의 유상 원조와 증여, 기술협력 형태의 무상원조로 분류하고 있다.

〈표 3-17〉 우리나라의 ODA 체계

구 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Bilate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자금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공여, 현금공여</li> </ul> </li> <li>◦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사업</li> </ul> </li> </ul>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유상자금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협력기금(EDCF)</li> </ul> </li> </ul>	한국수출입은행 (KEXIM)	기획재정부
다자간 (Multilateral)	◦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기획재정부	
	◦ 분담금 : UN, OECD 등	외교통상부	

#### 1) KOICA 자금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실시기관으로 1991년 4월에 설립되었고,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 파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조사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개발조사사업의 사업유형 및 분야

개발조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의 제공은 물론 수원국 정부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로·철도·공항·항만, 도시 개발, 자원·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농림·수산, 자원·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된다.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각종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긴요하나, 자체 재원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내지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실시 설계 등이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이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실시 설계 등 각종 기술용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개발조사사업이다.

#### 나. 지원 실적

KOICA 지원 실적은 2006년 기준 총 1,848억원(미화로 1억 9,349만 달러) 규모이고, 이 중 양자간 증여가 1,837억원이고, 다자간 증여가 11억원 규모이다(<표 3-17> 참조). 해외건설과 관련이 깊은 개발조사사업비는 68억원(미화로 713만 달러) 규모이다.

〈표 3-18〉 KOICA 협력실적 총지원액

(단위 : 백만원, 천달러)

사업분류	2003		2004		2005		2006	
	₩	\$	₩	\$	₩	\$	₩	\$
협력사업 계(A+B)	147,900	124,089	203,408	177,700	215,120	210,015	184,881	193,489
양자간 증여(A)	146,696	123,078	202,371	176,794	206,810	201,902	183,715	192,269
연수생 초청	12,833	10,767	13,177	11,511	15,228	14,866	18,856	19,734
전문가 파견	968	812	961	840	4,309	4,207	3,697	3,869
의료단 파견	1,834	1,539	2,293	2,004				
태권도 사범 파견	1,182	992	1,639	1,432				
해외봉사단	12,179	10,218	24,544	21,442	33,597	32,800	32,849	34,379
개발조사	3,904	3,276	4,336	3,788	6,784	6,623	6,810	7,127
물자지원	52,566	44,103	76,861	67,146	48,792	47,634	34,630	36,242
프로젝트	39,098	32,804	58,125	50,779	72,756	71,029	60,298	63,105
NGOs	7,933	6,656	1,052	919	2,837	2,770	3,983	4,169
긴급원조	1,209	1,014	1,151	1,006	12,724	12,422	4,688	4,907
개발인식 증진	1,368	1,147	1,913	1,671	2,327	2,272	2,361	2,471
행정비	11,621	9,750	16,319	14,257	15,766	15,392	16,708	17,486
다자간 증여(B)	1,204	1,010	1,037	906	8,310	8,113	1,166	1,220
전문가 파견	121	101	105	91				
물자지원	611	512	682	596				
프로젝트	352	296	250	218				
긴급원조	121	101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http://www.koica.go.kr)).

## 2) EDCF자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로 구분되는데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해당사업의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차관을 지원한다.

**기자재차관(Equipment Loan)** : 개도국의 특정 산업 부문, 특정 개발 계획 또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 :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 분야, 특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이다. 예를 들면, 개도국 국영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 주고 각각의 최종 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국영은행에 설정된 신용한도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물자차관(Commodity Loan)** :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차관이다.

다. 지원조건

EDCF 차관의 표준지원조건은 지원 대상 국가를 소득 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조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2008년 8월 기준 소득수준별 국가군별 지원조건은 <표 3-19>와 같음).

원금 상환은 연 2회 정기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대하여 매 6개월마

다 후취하고 있다. 담보는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중앙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한다.

〈표 3-19〉 표준 지원조건(2008년 12월 15일 현재)

그룹 분류	분류기준	지원조건	
		금리	상환(거치) 기간
I	UN분류 최빈국	0.01 ~ 0.1%	40(15)년 이내
II	세계은행 분류 I 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은 제외	0.05 ~ 1.0%	40(10)년 이내
III	세계은행 분류 II 그룹 및 Historic IDA 및 이에 준하는 국가	0.1 ~ 1.5%	40(10)년 이내
IV	세계은행 분류 III 그룹 중 Historic IDA를 제외한 하위 중소득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0.2 ~ 2.0%	40(10)년 이내
V	세계은행 분류 IV 그룹 및 상위 중소득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2.0 ~ 2.5%	30(10)년 이내

주: 1) 표준지원조건인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와 상환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 IDA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약자로서 세계은행에는 IBRD와 IDA가 있음.

#### 라. 지원 현황

2003년 EDCF 자금의 승인 현황을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4건 1,002억원, 기자재차관이 4건 636억원 등 합계 8건 1,639억원이었다. 2007년에는 개발사업차관이 18건 4,850억원, 기자재차관이 3건 693억원으로 합계 21건 5,542억원으로 3.4배 증가하였다(<표 3-20> 참조). 그러나 집행실적은 2003년 개발사업차관 1,009억원, 기자재차관 361억원 등 합계 1,370억원에서 2007년에는 개발사업차관 1,363억원, 기자재차관 190억원 등 합계 1,553억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표 3-21> 참조).<sup>12)</sup> 최근 2003년부터 EDCF 승인 실적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비하여 집행 실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EDCF 승인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등의 기간 2~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12) KOICA 자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6년 4억 5,530만 달러 수준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05% 수준이다. 이 중 무상원조인 KOICA 자금이 1억 9,310만 달러이고, 유상원조인 EDCF 자금이 1억 1,710만 달러 수준이다.

〈표 3-20〉 EDCF 차관 종류별 승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3	100,248	4	63,602	4	163,850	8
2004	192,127	11	45,460	2	237,587	13
2005	224,107	10	72,766	3	296,873	13
2006	287,005	14	53,127	2	340,132	16
2007	484,970	18	69,254	3	554,224	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표 3-21〉 EDCF 차관종류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합계
2003	100,939	36,100	137,039
2004	109,073	46,427	155,500
2005	117,453	46,797	164,250
2006	87,434	48,644	136,079
2007	136,312	19,024	155,3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 3)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문제점<sup>13)</sup>

ODA 자금 중 해외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KOICA 개발조사사업 자금과 EDCF 자금이다. 이들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문제점은 첫째, 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2006년 현재 KOICA 개발조사사업의 규모는 68억원이고, EDCF 자금은 승인실적 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EDCF 자금과 민간금융과의 협조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13)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문제점과 제4장(해외건설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제4절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개선 방안이 채택될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포함하였다.



본 장에서는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인 해외건설 금융지원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건설 관련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 현황과 공적인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관련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금융지원제도는 해외건설 보증, 시장 개척지원제도,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및 공적원조자금의 순으로 논의한다.

## 1.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 보증에서 중소기업 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공적인 수출보증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1) 건설공제조합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유형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에 대한 복보증을 할 수 없다.<sup>14)</sup> 외국환 업무는 첫째,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셋째,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넷째,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또한, 외국환이란 ① 대외 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및 표시통

14) 물론,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 ② 외화증권(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및 ③ 외화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외국환 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기본적으로 은행은 모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그 외의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2) 건설공제조합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방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 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다만, 「외국환관리법」상의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개념의 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이다. 「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외에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조).

또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채신관서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없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6호).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법 개정 조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6조(금융기관) ----- 1. ~ 5. (현행과 같음) <b>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b>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b>3의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b> <b>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b> <b>가.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b> <b>나. 비거주자와의 보증</b>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하 생략)	<b>4.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b>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  (현행과 같음)

## (2)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방안

한국수출입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수출신용기관이나,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자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4년 8,991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4년 17억원이고(전체 보증에 대한

0.2%), 2007년에도 476억원(전체 보증에 대한 4.7%)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제3장의 <표 3-5> 참조).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2004년 4억 2,000만 달러에서 2007년 67억 달러로 15.7배 증가하였다(제2장 <표 2-1> 참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다. 할당 비율은 전년도 전체 건설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금액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 전체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16.8%이다.

중소기업의 수주 금액과 연계하여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 2. 시장개척지원제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시장개척 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매몰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3장에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시장개척 자금과 흡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연방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 이하 USTDA)의 업무 방법을 조사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 (1) 미국 USTDA 벤치마킹

### 1) 개요

미연방무역개발청(USTDA)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developing and middle-income countries)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들 국가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이다. USTDA는 이러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해외 프로젝트 스폰서(project sponsor)가 행하는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사전방문(orientation visit), 훈련(training), 워크숍(workshop),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업무에 대해서 해외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직접 보조금(grant)을 제공한다. 해외 프로젝트 스폰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이고, 현지 기업도 될 수 있다.

### 2) 지원대상 프로젝트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에게 평등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달과정을 갖춘 사업, 미국 상품과 서비스 판매 기회를 제시하는 것, 프로젝트가 발주된 나라의 최상위 개발 계획과 현지 미국 대사관의 지지가 있는 사업, 자국으로부터 지원과 보조금을 받는 외국 회사로부터 강한 경쟁에 직면한 사업 등이다.

### 3) 지원방법(사업 대상)

#### 가.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USTDA는 미국 컨설턴트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현지 스폰서가 결정했거나, 현

지 스폰서가 미국 컨설턴트 중에서 타당성 조사 수행자를 결정하기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 나. 사전방문(orientation visit)

사전방문(orientation visit)은 미국 업체가 특정한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설계,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 조달공무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사전방문은 미국 공급자가 현지 의사결정권자에게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기회를 주면서, 미국 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 다. 워크숍(workshop)

워크숍은 현지 의사결정권자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친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지 프로젝트 스폰서와 미국 업체간 사업 친화력을 견고하게 해 준다. 워크숍은 현지 프로젝트 스폰서가 수주기회를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자는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기술, 재정 및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라. 기술원조 및 훈련(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USTDA는 지원 대상국의 특정 분야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법, 제도 등을 마련해줌으로써 향후 수출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 4) 보조금 비용 지급 방식

USTDA가 해외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프로젝트 스폰서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하다. 프로젝트 스폰서가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계약자를 경쟁 방식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USTDA는 전액의 보조금을 스폰서에게 지급한다. 반면, 보조금을 받는 해외 스폰서가 이미 미국기업 중에서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계약자 및 스폰서가 비용의 일



부를 부담하게 한다. 단, 계약자 및 스폰서가 부담하는 비용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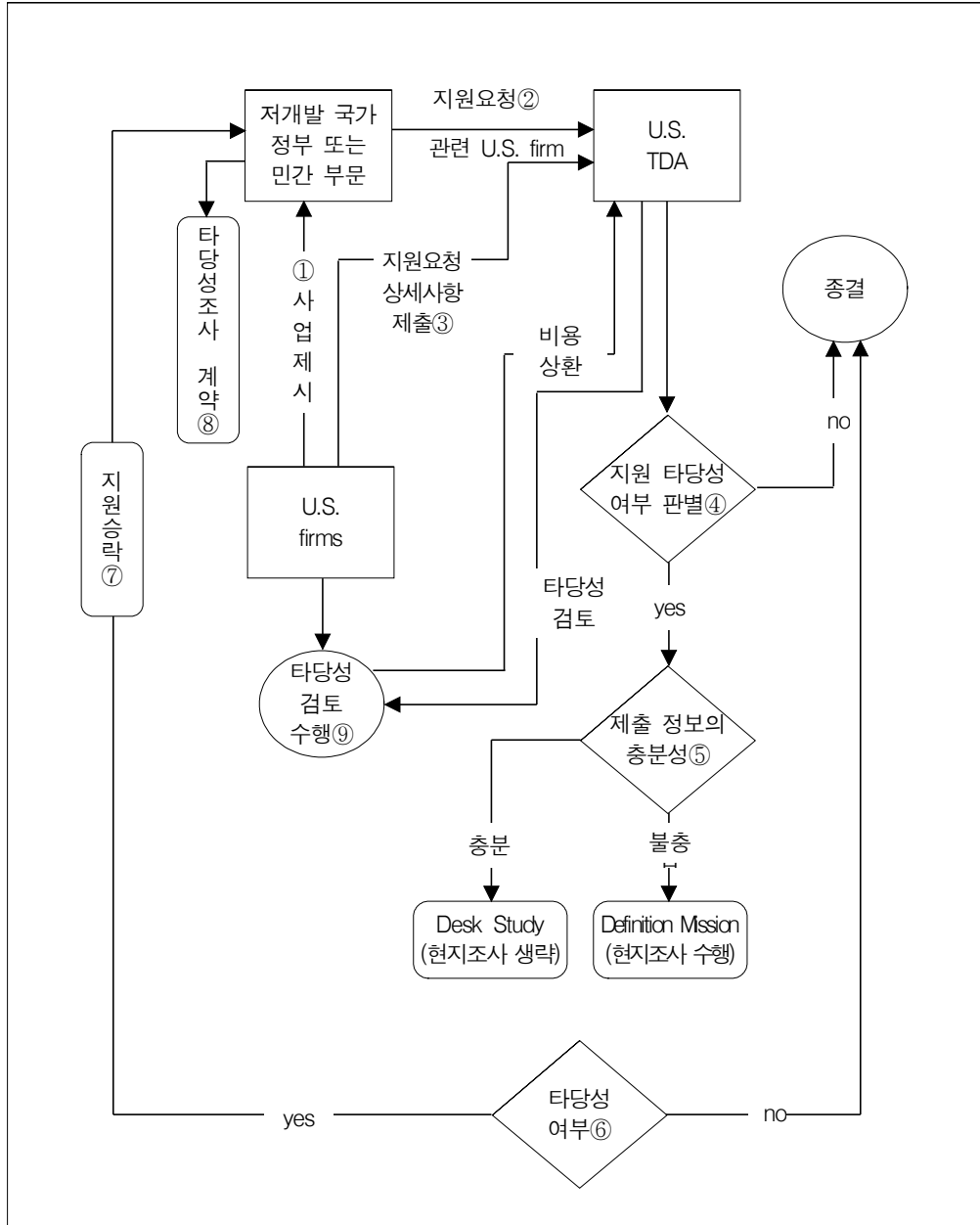
보조금을 받는 해외 스폰서가 이미 미국의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비용분담 비율은 계약자의 회사의 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든 비용 및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USTDA는 프로젝트가 실행(implementation)되고, 계약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면 비용을 계약자로부터 환급(reimburse)받는다. 보조금은 해외 스폰서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 기업이 해외 스폰서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5) 지원절차

USTDA의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는 미국 기업이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기업에게 사업을 제안하면 해당사업의 스폰서는 관련 미국 기업을 명시하여 USTDA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 이 경우 미국기업이 스폰서를 대신하여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을 받은 USTDA는 지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한 정보가 충분하면 현지 조사를 생략하고 데스크 조사(Desk Study)만으로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가 불충분하면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이후에 사업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환급한다(USTDA의 타당성 조사 지원 절차는 <그림 4-1> 참조).

〈그림 4-1〉 UATDA의 신규시장 개척 타당성조사 지원 절차



출처 : 송영민, 이용광 등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 연계 방안」 (2004), 해외건설협회, p. 211에서 발췌함.

## 6) 지원실적

USTDA는 2005년 5,695만 달러, 2006년 4,829만 달러, 2007년 4,58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건수로는 2005년 345건, 2006년 268건, 2007년 236건을 지원하였다. 지원한 프로젝트 수는 2005년 271개, 2006년 227개, 2007년 205개를 지원하였다(<표 4-2> 참조).

**<표 4-2> USTDA 지원 현황**

(단위 : 100만 달러)

회계연도	금액	건수	총 프로젝트 수	신규프로젝트 수	국가 수
2005	56.95	345	271	187	66
2006	48.29	268	227	165	51
2007	45.85	236	205	139	65

자료 : USTDA Annual Report, Summary of Statistics, 각 연호.

미국 USTDA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산업분야별 지원실적은 <표 4-3>과 같고, 건설업에 해당하는 에너지·발전(Energy & Power), 교통(Transportation) 및 수자원·환경(Water and Environment)의 합계는 약 66.3%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 USTDA가 건설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7년 기준 4,585만 달러의 66.3%인 3,037만 달러, 약 337억원 정도이다.

〈표 4-3〉 USTDA 분야별 지원액

(단위 : 달러, %)

분 야	2005		2006		2007	
농업관련 사업(Agribusiness)	2,265,067	4.0	1,088,512	2.2	1,145,211	2.5
에너지와 전력 (Energy & Power)	10,799,517	19.0	11,513,223	23.8	13,890,947	30.3
인력자원 (Human Resources)	1,300,625	2.3	228,405	0.4	153,878	0.3
제조업(Manufacturing)	2,457,685	4.3	2,639,830	5.5	320,320	0.7
광업과 천연자원 (Mining & Natural Resources)	6,587,928	11.5	2,824,187	5.8	74,992	0.2
멀티섹터 및 기타 (Multi-Sector & Other)	3,293,274	5.8	2,608,517	5.4	2,833,933	6.2
서비스(Services)	7,091,394	12.5	7,350,139	15.2	4,426,520	9.6
통신(Telecommunications)	3,403,598	6.0	3,308,777	6.8	6,519,226	14.2
교통(Transportation)	13,367,342	23.5	11,764,814	24.3	10,064,025	22.0
수자원과 환경 (Water & Environment)	6,388,234	11.2	4,965,079	10.2	6,418,032	14.0
총계	56,954,664	100	48,291,483	100	45,847,084	100

자료 :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Annual Report 2007, p. 35.

## 7) 성과 평가

USTDA는 2004년부터 상업적 목적(commercial objective)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성평가(feasibility study)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에 대해서 평가(review)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수출승수(export multiplier)<sup>15)</sup>와 수주 성공률(hit rate)<sup>16)</sup>이다. 2007회계연도의 수출 승수는 39이고, 수주 성공률은 35%이다. 즉, 최근 10년 동안 USTDA는 2억 8,7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으로 인한 수출은 112억 달러이다. 이 경우 수출승수는  $\frac{11,200}{287} = 39$ 이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1,19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423개의 프로젝트가 성공하였다. 이 경우 수주 성공률(hit rate)은  $\frac{423}{1,197} = 0.35(35\%)$ 이다.

15) 수출승수는 USTDA 기금 1달러를 사용하여 수출한 금액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함.

16) 수주성공률은 수출로 이어진 USTDA 프로젝트 수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함.

〈표 4-4〉 USTDA의 회계연도별 성과 지표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목표치)
수출승수 (multiplier)	38:1	43:1	43:1	39:1	37.5:1
수주성공률 (hit rate)	38%	36%	35%	35%	35%

자료 : USTDA,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7. 9. 30, p. iii.

## (2) 시장개척지원제도 합리화 방안

국토해양부 시장개척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미국 USTDA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척 자금은 건당 지원 한도액이 2억원이고, 연간 20억원인데, 미국 USTDA는 연간 약 5,000만 달러(1달러를 1,000원으로 적용할 경우 500억원)이고,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만도 약 3,000만 달러(1달러를 1,000원으로 적용할 경우 300억원)이며, 건당 평균 지원액은 18만 달러(약 1억 8,000만원)이다. 우리나라 시장개척자금의 전체 규모가 미국 USTDA의 지원액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지원액 규모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미국 건설시장의 7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50억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당 지원액 한도는 미국 USTDA의 평균 지원액과 비슷한 수준이다(<표 4-5> 참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시행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실적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3년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30.6%인 1억 2,000만원이고, 2007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67.1%인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즉, 2003년에 중소기업이 30.7%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60~70%를 지원받았다(<표 3-7> 참조). 전체 지원 실적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높여야 한다.

〈표 4-5〉 USTDA 평균지원액

(단위 : 백만 달러)

회계연도	금액	건수	건당 평균지원액	총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당 평균 지원액
2005	56.95	345	0.17	271	0.21
2006	48.29	268	0.18	227	0.18
2007	45.85	236	0.19	205	0.19

자료 : USTDA Annual Report 각 연호, Summary of Statistics.

둘째, 미국의 USTDA는 타당성 조사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받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개척 자금도 지원금을 받은 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할 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가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USTDA는 매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고 목표치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장개척 자금 지원제도를 매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토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 (1)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방안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사업 관련 융자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이나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전무하다(제3장 <표 3-10> 참조).

이와 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 실적이 전무한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 관련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용자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에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된다.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용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4장 제1절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용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전체 건설기업 용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용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다. 할당 비율은 전년도 전체 건설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주금액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 전체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16.8%이다.

전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용자 금액의 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용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 (2) 수출보험 확대 방안

### 1)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확대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소요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은 해외투자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4,817억원, 2008년 9,88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하다.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이들 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과

이낸스 사업으로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에는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된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자금 공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지원 비율을 매우 낮게 설정하여(예를 들어, 총차입금의 10%) 위험을 낮추고, 점차 노하우가 축적되면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환변동보험의 한도 확대 및 구조 변경

건설회사들에게는 입찰금액 계산시와 수주 당시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와 계약에서 대금 결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환리스크 헤지(hedge)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2008년 환변동보험 인수 목표는 18조원).

또한, 현재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환변동 보험의 구조는 환율 하락시에는 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25%로 정해져 있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무제한 환차손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변동보험 구조를 환율 상승시에도 회수금액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조로 개선하여야 한다.

## 4.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본 절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본래의 취지가 해외건설 지원과 관련이 없지만 해외건설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 (1) KOICA 개발조사 사업 및 EDCF 자원 확충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DA 자금 중 해외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 자금이다. 개발조사사업이란 개도국이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실시 설계 등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현재 KOICA 개발조사사업의 규모는 68억원이다. 이는 KOICA 총 사업지원액 1,849억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이하 JICA)의 2006년도 개발조사사업은 총 사업지원액 1,512억 엔 중 약 140억 엔(약 9.3%)으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다.

개발조사는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국제 기술용역 수주 경쟁력과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향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17)</sup> 대부분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지 또는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조사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 개발조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주 리스크를 ODA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개발조사는 엔지니어링 기업 및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ODA 자금인 EDCF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진출에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DCF 자금은 전체 지원 규모나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2007년 승인 실적 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이다.<sup>18)</sup> 따라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기금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UN에서도 각국 정부에 대하여 GNI 대비 0.7% 이상을 원조에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OECD/DAC 회원국가의 평균 비율도 2006년 기준 0.31%이다.<sup>19)</sup> 2006년 우리나라

17) 최민경,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p. 179.

18) 물론 2007년 승인 실적 5,542억원 규모도 2003년 1,639억원에 비하면 3.4배 증가한 규모이다.

19) 국제사회의 ODA 현황은 부록 2 참조.

GNI 대비 ODA 비율은 0.05%이다.

## (2) 공적자금 지원 절차 단순화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지원 요청, 승인 및 정부간 협정 체결까지 평균 22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관신청에서 구매계약(공사계약) 체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었다.<sup>20)</sup>

KOICA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량사업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 이를 다시 재외공관으로 통보하고 조사단을 파견하여 수원국과 사업 시행조건에 합의한 후 합의서를 체결,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공적자금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원조 효과가 퇴색되고, 실제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부족시 추가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sup>21)</sup>

## (3)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의 연계 강화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 자금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KOICA 개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 프로젝트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3년도 기준 EDCF가 지원한 116개 사업 중 KOICA가 실시한 개발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 사업은 5건, 958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부진하다(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사업과의 연계 실적은 <표 4-6> 참조). 이와 같이 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자금 지원의 연계가 미흡한 것은 사업타당성 조사 이후 후속 조치로 수원국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원 국가와

20) 송영민, 이용광 등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 연계 방안」(2004), 해외건설협회 p. 159에서 인용.

21) 송영민, 이용광 등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 연계 방안」(2004), 해외건설협회 p. 160와 p.174에서 인용.

긴밀히 협의하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22)</sup>

〈표 4-6〉 KOICA 개발조사사업과 EDCF 사업과의 연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국가명	사업명	승인 연도	승인액
베트남	18번 국도 개량	1995	18,355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1996	12,441
요르단	Madaba시 폐수처리 시설	1996	7,622
캄보디아	캄포트 ~ 트라판로포 도로 개보수	2002	21,479
예멘	통신망 현대화	2003	35,921
합계			95,818

자료 : 해외건설협회.

#### (4) EDCF 자금과 민간금융 등과의 연계 필요

EDCF와 민간금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일본의 경우 엔차관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금융기관과 JBIC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EDCF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하여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5)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 유지 또는 점진적 비구속성화

현재 일부에서는 EDCF 자금을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구속성(tied) 원조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DCF 자금의 비구속성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대부

22) 자세한 내용은 송영민, 이용광 등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 연계 방안」(2004), 해외건설협회 p. 163~164 참조.

분의 수원국이 구속성 원조 조건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DCF 자금을 제공받는 국가가 주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인데, 현지 업체나 제3국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의 질이 떨어져 차관 제공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며, 가격 경쟁력은 중국, 인도 등 해외건설 후발 개도국 기업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EDCF 자금이 비구속성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구속성(untied) 조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예를 들어 IT 등)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 조건에 단순 가격이 아닌 기술력 등 제반 평가요소를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최종 평가 및 승인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sup>23)</sup>의 엔차관의 경우도 외형상으로는 비구속성(untied) 원조이지만 실제로 자국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어 발주하고 있다. 즉, 차관공여국인 일본의 컨설턴트가 입찰 절차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거나, 자국업체만이 PQ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수 공정에 대한 실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자금(예를 들어, 1,00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비구속성(untied)으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구속성 조건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이후 비구속성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3)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이하 JBIC)은 종전의 일본수출입은행(JEXIM : Export-Import Bank of Japan)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관인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가 합병되어 1999년 10월 1일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JBIC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업무와 공적개발원조 업무이다. JBIC의 공적개발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가 엔 차관이다. 2008년 10월 1일부터 JBIC의 공적개발원조 업무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이하 JICA)로 이관되었다.

2008년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5조 23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국제입찰로 진행되어 외국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건설 시장 규모는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약 10%인 5,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금융이 중요한 경쟁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금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해외건설에 필요한 금융의 종류를 도급공사와 투자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해외건설 보증과 정부가 수행하는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을 부여하여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것과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확대를 제안하였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 보증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면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이행성 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였으나 모두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은 전무하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3년에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개척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개발청(USTDA)을 벤치마킹하여 지원 자금 규모를 현재 연간 20억원 수준에서 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개선할 것과 지원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토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의 중소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할 것, 환변동보험의 한도 확대와 보험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KOICA 개발조사 사업비 및 EDCF 자금 확충, 지원 절차 단순화, KOICA 개발조사 사업과 EDCF 연계 강화, EDCF 자금과 민간 금융의 연계 강화 및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 유지와 점진적인 비구속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보고서는 해외건설과 관련된 금융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건설시장이 침체된 지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해외건설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본 보고서가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 부록 1. OECD의 수출신용협약

「수출신용협약(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은 1978년 OECD 주요 회원국들이 합의하여 제정한 협약으로 계속하여 개정되었다. 협약의 목적은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지원 받는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sup>24)</sup>

협약은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적인 수출신용에 적용된다. 또한, 무역과 관련된 구속성 원조와 부분 비구속성 원조(tied aid and partially untied aid)의 형태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군사장비와 농산품은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선박, 핵발전소, 민간 항공기, 개량할 수 있는 에너지와 수자원 프로젝트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요 규정은 공적인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출신용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제한하는 것이다. 조건을 제한하는 것의 예로는 최대 상환 기간(maximum repayment terms), 신용을 제공할 시점에서의 최소 현금 상환액, 최소 보험료, 최소 이자율,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시 운영의 탄력성의 정도 등이 있다.

참여 국가는 호주, 캐나다, EC(27개국),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및 미국이다.

수출신용의 종류는 보험(insurance), 보증(guarantee) 및 일정한 기간동안 상환이 연기되는 자금조달 방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① 직접 대출(direct credit/financing), ② 자금재 조달(refinancing), ③ 이자율 지지(interest rate support), ④ 원조 금융(aid financing) 및 ⑤ 수출 보험과 보증(export insurance and guarante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A1>과 같다.

24) 본 고는 박형원, 김태엽 등 「해외건설사업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방안」과 OECD 「The Export Credits Arrangement(1978~2008) Achievements and Challenges-Continued」를 참고하여 작성했음.

〈표-A1〉 OECD 수출신용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 적	-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
참 가 국	- 호주, 캐나다, EC(27개국),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및 미국
적용범위	- 협약의 적용 대상은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적인 수출신용에 적용됨. - 또한, 무역과 관련된 구축성 원조와 부분 구축성 원조(tied aid and partially untied aid)의 형태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음. - 군사장비와 농산품은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부문별 협약	- 선박, 핵발전소, 민간항공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 부문별 특별 가이드라인 적용
수출신용조건	- 수출금액의 15% 이상 선수금 수령 - 최장상환기간 : 1군 국가 5년(사전통보시 8.5년), 2군 국가 10년, 핵발전 이외의 발전플랜트 12년 ※ 1군 국가 : IBRD 국가분류에 의거 수혜국 명단 졸업국가 2군 국가 : 1군 국가 이외의 국가
최저 이자율	-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참가국 자국통화의 기준금리에 100bp를 가산한 수준. (기준금리는 3, 5, 7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스 수출신용 양해 (특별 가이드라인)	-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와 관련한 수출신용 제공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불구하고 별도 양해 사항을 준수 - 최초 원금상환기일, 상환 스케줄, 최장상환기간 등 상환 조건의 적용에 있어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 - 단, 평균 대출기간이 5.25년 이내이어야 함 (최초 원금상환이 신용기산점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최장 상환기간이 15년 이내인 경우 평균 대출기간을 7.25년까지 적용 가능)

자료 : OECD, The Export Credits Arrangements(1978~2008) : Achievements and Challenges-Continued.



## 부록 2. 국제사회 ODA 동향

2000년대 들어 최대 공여국의 위치를 지켜온 미국은 2006년에도 235억 달러로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순이다. 미국의 원조는 전년 대비 18.2%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부채 탕감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sup>25)</sup>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원조 규모를 축소하여 온 일본은 2005년 부채 탕감 및 쓰나미 지원으로 예외적으로 규모를 확대한 후, 2006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9.1% 감소한 11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25%를 기록하였다.

양적 규모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ODA/GNI 비율에 있어서 OECD/DAC의 2015년 달성 목표인 0.7%를 상회하는 회원국은 스웨덴(1.02%), 노르웨이(0.89%), 룩셈부르크(0.89%), 네덜란드(0.81%), 덴마크(0.80%) 등으로 모두 북유럽 국가이다. 2006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0.18%로 그리스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하며, 일본은 2005년 0.19%에서 0.06%포인트가 증가한 0.25%를 기록했다.

OECD/DAC 비회원국인 한국은 원조 규모상으로는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ODA/GNI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인 미국(0.18%), 그리스(0.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0.05%로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31%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

25) 본 고는 권윤·정지선,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0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표-A2〉 OECD/DAC 회원국 ODA 공여 실적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호주	989	0.26	1,237	0.25	1,680	0.25	1,460	0.25	2,123	0.30
오스트리아	520	0.26	503	0.20	1,573	0.52	678	0.23	1,498	0.47
벨기에	1,072	0.43	1,887	0.61	1,963	0.53	1,463	0.41	1,978	0.50
캐나다	2,006	0.28	2,209	0.26	3,756	0.34	2,599	0.27	3,684	0.29
덴마크	1,643	0.96	1,747	0.84	2,109	0.81	2,037	0.85	2,236	0.80
핀란드	462	0.35	556	0.34	902	0.46	680	0.37	834	0.40
프랑스	5,486	0.38	7,337	0.41	10,026	0.47	8,473	0.41	10,601	0.47
독일	5,324	0.27	6,694	0.28	10,082	0.36	7,534	0.28	10,435	0.36
그리스	276	0.21	356	0.21	384	0.17	321	0.16	424	0.17
아일랜드	398	0.40	5,100	0.41	719	0.42	607	0.39	1,022	0.54
이탈리아	2,332	0.20	2,393	0.16	5,091	0.29	2,462	0.15	3,641	0.20
일본	9,283	0.23	8,911	0.20	13,147	0.28	8,922	0.19	11,187	0.25
룩셈부르크	147	0.77	189	0.80	256	0.84	236	0.83	291	32,760
네덜란드	3,338	0.81	4,059	0.81	5,115	0.82	4,204	0.73	5,452	676,089
뉴질랜드	122	0.22	169	0.23	274	0.27	212	0.23	259	0.27
노르웨이	1,696	0.89	2,043	0.92	2,786	0.94	2,199	0.87	2,954	0.89
포르투갈	323	0.27	2,986	0.21	377	0.21	1,031	0.63	396	0.21
스페인	1,712	0.26	2,030	0.25	3,018	0.27	2,437	0.24	3,814	0.32
스웨덴	1,991	0.83	2,100	0.70	3,362	0.94	2,722	0.78	3,955	1.02
스위스	939	0.32	1,297	0.38	1,767	0.44	1,545	0.41	1,646	0.39
영국	4,924	0.31	6,166	0.34	10,767	0.47	7,883	0.36	12,459	0.51
미국	13,290	0.13	15,791	0.14	27,622	0.22	19,705	0.17	23,532	0.18
DAC 총합	58,274	0.23	68,483	0.25	106,777	0.33	79,410	0.26	104,421	0.31
한국	279	0.06	334	0.06	423	0.06	752	0.10	455	0.05

주 : OECD 회원국은 22개국이고, 한국은 DAC 회원국이 아님.

자료 :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ocument/>).

## 참고문헌

- 권율·정지선,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오늘  
의 세계경제 제08-0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영민, 이용광 등,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방안」, 해외건설협회,  
2003. 12
- 박형원, 김태엽 등, 「해외건설사업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방안」, 해외건설  
협회, 2005. 12
- 박형원, 김태엽 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해외건설협회·연세대  
학교, 2006. 12
- 최민경,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  
구자료 정책연구, 2008
- OECD, The Export Credits Arrangement(1978~2008) : Achievements and  
Challenges-Continued, April, 2008
- OECD 홈페이지: [www.oecd.org](http://www.oecd.org)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 수출보험공공사 홈페이지: [www.keic.go.kr](http://www.keic.go.kr)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www.koica.go.kr](http://www.koica.go.kr)
- 미무역개발청 홈페이지: [www.ustda.gov](http://www.ustda.gov)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www.icak.or.kr](http://www.icak.or.kr)
- 세계은행(World Bank)의 PPI Database(<http://ppi.worldbank.org>)

## Abstract

### Improvement Ways of Financial Supporting Schemes for Overseas Construction of Small-and-Medium Sized Companies

The size of world construction market has increased and is estimated to be 5 trillion and 23 billion dollars in 2008. The size of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is estimated to be 500 billion dollars in 2008 as 10 percent of world construction market. The proportion of development type construction project in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has increased. Also, some foreign project owners require construction contractor to bring funds to complete the project. Therefore, the financial capacity of construction companies is an important competitiveness factor in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However, Korean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shortfalls in financial capacit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s and suggested improvement ways of financial supporting schemes for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for overseas construction.

First,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to expand overseas bonding capacity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This study propo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llow Construction Guarantee (former Korea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to deal with foreign exchange so that Construction Guarantee will underwrite the overseas construction bond. An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Export and Import Bank will allocate overseas construction bonding capacity for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t certain rate.

Second, this study suggested Overseas Market Development Supporting Fund to be expanded from 2 billion to 5 billion Won for one year.

Thir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Export and Import Bank will allocate overseas construction loans for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t

certain rate. An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will underwrite more insurance policies for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Last, this study sugg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fund for small-and-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lso, this study suggest that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on Agency) and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hall work in cooperation and that EDCF shall be untied gradually.

## ○저자 소개

이 의 섭(eslee@cerik.re.k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미국 뉴욕주 총무처(New York State Depart. of Civil Services) 근무

서울투자자문 자문역 역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규제개혁위원

## <주요 저서 및 논문>

“An Analysi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hoice,” Journal of Urban Economics, 38, 236-251, 1995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12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1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업무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6

건설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2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11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11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제도 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11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2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2008. 12